

아동성폭력범 처벌 너무 약하다



성폭력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된다

① 높아지는 중형 여론

대한민국에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인연수심의 성범죄가 재발하면서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예방 대책들이 제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아동 등 여성은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고, 학제적 거제와 동시에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 범인이 대부분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우선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은 물론이다. 처벌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이대통령 "나주 성폭행 국민께 죄송"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난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한 뒤 경찰의 후회조치가 나왔다. 경찰이 2년 만에 거리 불심검문을 다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2일 "문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법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 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7조는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지난 2009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예민 양형기준이 세 차례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술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사법부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계속 높여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10년 6월 초등학교에서 8살 여아를 납치,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면에 계속>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최근 주요 성폭행·성추행 사건

- ▲ 9월 2일 천안 고교생 이모군 초등생·중학생 학장실 등에서 성폭행
- ▲ 8월 29일 서울 이모씨 쓰레기 버리러 나온 주부 성폭행
- ▲ 8월 27일 부천 박모씨 PC방 여직원 강제 성추행
- ▲ 8월 24일 광주 김모교사 상당실에서 여중생 성추행
- ▲ 8월 23일 안산 정모씨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성추행
- ▲ 8월 14일 서울 유모씨 12세 친조카 성추행

악마의 얼굴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범인 고종석(23)이 지난 1일 오전 나주시 영산포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지역민의 알 권리로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범인 고종석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국민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가족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를 대신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 1930호 강찬수

당직판사는 2일 오후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인 고종석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물고온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신안군 등 전남지역 9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3~5일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기까지 차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야 해 20일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집계한 결과, 광주는 443억원, 전남은 1719억원에 달했다.

광주는 주택 948건, 가로수 701건, 간판 604건 등 총 39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비닐하우스 437동(면적 473ha)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지역은 낙파피해 면적만 7068ha으로 집계된 가운데 총 농경지 피해면적이 6만3637ha에 달했고, 양식장 피해와 어구 파손 등 수산시설 피해만 200억원을 넘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알림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광장' 필진이 오늘부터 새로 바뀝니다. 사회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성과 혜안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현안과 관심사 힘으로 있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새 필진은 12월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앞으로 6

개월 동안 갑수록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와 갈등구조

에 대한 소통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미, 한중, 한일 관계 등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필치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월요광장'에 대한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 김병식 초대당 대장

▲ 연세대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 ▲ 전 국립 대우부총장 ▲ 현 한국 사립산업대 총장협의회 회장 ▲ 현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 대통령자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8, 9대)



◇ 김영웅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1985. 8) ▲ 전 한국 경제연구원장 ▲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저서로 '생활 속 경제'

등 다수

◇ 김우창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 서울대, 미국 하버드대학원 박사 ▲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총감독 ▲ 전 한예종 교수



◇ 김정선 제9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이화여대 서양화과,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대학원 박사 ▲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 제6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총감독 ▲ 전 한예종 교수

등 다수

光州日報社

전남 9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곧 선포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물고온 강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신안군 등 전남지역 9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전망이다.

이들 태풍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은 210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기사 2·8·9·10·11면〉

행정안전부는 2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3~5일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되기까지 차치단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야 해 20일 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기상악화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삼 지역의 피해가 집계되면서 태풍으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재산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피해액을 잠정

FP Day
2012

한국FP협회와 함께하는
전문 재무설계의 장,
FP Day 2012
9월 12일에 만나요!

돈 걱정, FP와 함께 풀어보세요

한국FP협회는 오는 9월 12일 전국 8개 주요 도시에서 국민 여러분께 특별 강연과 함께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 드리는 "FP Day 2012" 행사를 개최합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단체인 한국FP협회의 회원으로 재무설계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CFP 및 AFPK 인증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은퇴 준비·자녀 교육·내집 마련·부채상환·상속·세금 등의 재무적 문제에 대해 친절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무설계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 여러분의 재무적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보세요!

FP Day 2012 전국 특별 강연회 및 무료FP상담

일시 2012년 9월 12일(수) 강연주제 재무설계를 통한 행복한 미래 설계

일정 강연회 : 오후 2시~오후 3시 30분 무료FP상담 : 강연회 이후 오후 4시부터

장소 서울 하나대투증권 대강당 ·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 대구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 ·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 · 광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

전주 KT빌딩 3층 대강당 · 청원 교통문화회관(방림동) · 울산 경남은행

울산본부 대강당(시청 맞은편) * 현장 등록시 선착순 마감입니다.

상담 신청 www.fpkorea.com 문의 02-3276-7653, 4

KFPA

Korea Financial Planner Association

www.fpkorea.com

02-3276-7653, 4

www.fpkorea.com